자기를 진짜로 믿는다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 21면에서 계속

러니까 글쎄 이튿날 그냥 툭툭 털고 취직할 데를 마련해야겠다 하고 온 겁니다. 이젠 다 나은 것 같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속으로 주인공한테 '주인공, 감사합니다.' 이럭하고선 감사하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만나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아이고, 이젠 병이 나았으니, 식구가 먹고살아야 할 테니 취직 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당신이 취직도 하게 하는 거지, 뭐. 저 사람 주인공이나 내 주인공이나 둘이 아니니까 내가 이런다면 저 사람 주인공도 둘이 아닌 까닭에 잘 끌고 취직도 시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나흘 만에 인천에 뭔가 하는 데 취직이 됐더랍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공부가 됐다고, 그 사람이 잘됐건만도 자기가 술을 한잔 사 주고 싶더랍니다, 고마우니까. 자기 공부가 되는 거니까. 자기 공부 대상이 됐거든, 실험 대상이 됐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실험을 해 보니 나도 좋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게 다 보살행이 아닙니까? 자기는 나쁘게 되고 남은 좋게 되고 또 나는 좋게 되고 남은 나쁘게 되고 이런다면 그건 보살행이 아니고 중생들이 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공부를 하면서도 우리가 생각을 안 해 보고 연구를 안 하고 행을 해 보지 않는다면 늘지를 않아요. 그리고 뚫리질 않아. 이거는 보석이려니 하고 가만히 두면 그게 줄든지 늘든지 그러질 않아요. 잘못되든지 잘되든지 한번 해보면은 잘못되는 거 잘되는 거를 알게 되거든요. 안 돼도 자기 법, 돼도 자기 법이라.

그래서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 실험으로써 잘 해 나갔는데 어느 때는 그렇게 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스님께서 안 되는 것도 법이라더니 요놈, 되는 것만 법이냐. 안 되는 것도 법이라는 걸 모르느냐!' 요렇게 생각을 하면서 '주인공이 날 가르치느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너무도 감사하더랍니다. 들고 나는 거, 안 되는 거 되는 거 모든 것을 거기다 감사하게 믿고 놓으니까는 너무 좋더랍니다.

스스로서 자기가 벌써 생각을 하면 알게 되니까요. 어떤 일이 있어 생각을 해 보니까는 내일모레 감사가 나올 것 같더랍니다. 감사가 나오는 걸 알게끔 되니까 미리미리 착착 준비해서 감사에 걸리지도 않았다지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닥칠 거는 벌써 착착…. 누가 움죽거리지 말라나요, 생각하지 말라나요. 생각하는 것도 움죽거리는 것도 다 공해서 돌아가는 거고 자기 실상이라고 해도 그 자리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장부를 척척 해 놓으니까 뭐, 걸릴 것도 없고, 와서 보자기를 풀어서 턱 내놓으니까 그냥 그냥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생활 불교는 그대로 여러분의 진실한 생활에서 움죽거리는 법입니다. 옥수수나무도 올해 바람이 많이 불고 폭풍이 일어날 것 같으면 뿌리를 깊숙하게 박아요, 그해에는. 그렇게 알고 하는데 인간으로서 어떻게 앞으로 닥칠 거를 자기가 튼튼하게 해 놓지 않습니까? 물이 쳐들어올 텐데 내가 어떻게 둑을 쌓아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깐 너무 역력하게 아주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사시라고 이런 공부 하라고 그러는 거지 귀신 마구니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생으로만 고집하지 마세요. 중생이 부처고 부처가 바로 중생입니다. 이 몸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부처를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물건이 있어야 보이죠? 부처님께서도 저렇게 물건으로 보이게끔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물건으로 보이게끔 해 놓고 움죽거렸기 때문에 부처님을 저렇게 모습으로 모셔 놨지 않습니까? 저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부처고요, 움죽거리면 법신이에요. 여러분도 가만히 앉아 있을 때가 없습니까? 가만히 생각 없이 앉아 있을 때는, 무심으로 눈을 감고 앉아 있을 때 부처예요. 그리고 생각이 났다 하면은 법신이구요. 일어나서 움죽거린다 하면 화신이구요.

그러니 여러분이 마음먹기에 달려 있고 행하기에 달려 있고 마음 씀씀이를 넓게 쓰는 데 달려 있고 좁게 쓰는 데 달려 있으니 좁게 쓰면 업보가 더할 것이고 넓게 돌려놓으면 업보라는 언어도 붙지 않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서운한 마음 들어요

질문 애지중지하던 자식을 장가를 보내고 나니 이 부모를 본척만척합니다. 마음공부하면서 서운한 마음도 다 주인공 자리에 놓고 그 마음 돌려 보려고 애쓰지만 자식에 대한 착 때문에 그런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 잘 다스리고 마음 중심 잘 잡고 갈 수 있도록 한 말씀 일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고 가는가. 사람은 공부할 때는 부모에 따라서 공부를 합니다.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상대성을 놓고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인간관계를 제대로 갖지 못하면서 친구들하고 몰려서 공부만 하다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졸업을 해서 사회에 나갔다고 하나,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하더라도 공부를 또 해야 한다 이 소립니다. 사회에 나가면 벌써 인간관계의 공부를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인가 하는 사회를 공부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분야를 공부합니다. 자기가 전자에 공부했던 것을 바탕을 삼아서 잘하려니까 또 공부를 해야 합니다.

허둥지둥 그렇게 공부를 하다가, 일을 하다가 보니까 가정이 생겼고 자식이 생겼고, 나중에는 자식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믿게 되고,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늙어서 오십이 넘고 정년퇴직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하, 나를 받쳤던 이 서까래가 하나둘 빠져 달아나가는구나.' 이런 걸 느낍니다. 나중에는 하나둘 하나둘 다 빠져, 오두마니 그냥 자기 기둥만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두마니 기둥만서 있다가 홀연히 생각을 하니까, '아하, 내가 빈손 들고 나왔다 빈손 들고 가는 이 마당에서 이 기둥 하나 선 것마저도 쇠퇴해 가는구나.' 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 하는 게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도리를 모르면, '야, 이놈의 자식들아! 너희를 내가 뛰면서 어떻게 가르쳤고 어떻게 기르고 어떻게 먹여 살렸는데, 너희들은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너희 살 궁리만 하고, 나는 한 달에 한 번 보거나 말거나 하는구나.' 하고선 아주 노여워하고 노발대발하고 그냥 척이 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 세상살이가 그런 거지. 본래 그런 거 아닌가? 저것들이 바로 나이기 때문에,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나는 섭섭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구나.' 이러고서 그냥 홀연히 아주 안치를 해서 자기가 자기를 놓고 그냥 여여하게 좋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음 한번 먹기에 달린 건데, 나 괴롭고 자식들 괴롭게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 자식은 바로 내 씨가 내 나무를 만들었고 내 나무에서 또 씨를 만들어서 나간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나인 것입니다. 부모도 미래의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마음이 그렇게 홀가분하게 좋은 것입니다. '그래, 네가 속 안 썩이고 잘 살고, 네가 잘하고 사는 것이 나한테 갚는 것이구나. 나한테 갚을 것도 없다. 네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잘해라. 잘 살아라.'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날 싸우게끔 되고 척이 지고 '이놈의 자식, 저놈의 자식' 하다 보면 그렇게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복이 들어가겠습니까? 돈도 웃고 즐기는 데 들어가기 좋아하지 찌푸리고 싸우고 그러는 데 들어가기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 없습니다. 가정도 만날 싸우고 그러면 자식들도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는 만날 싸워. 아이, 들어가기도 싫어.' 이렇게 돼서 방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침착하게 공부를 열심히, 자기 주인공 그 자체가 일체 만법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잊지 마시고, 일체 만법을 활용한다는 그 점을, 바로 도심으로써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기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도 세계적으로도 우주적으로도 다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우리가 무심코 그냥 한 번씩 던져서 행해 보십시오. '내가 모르니까 이거 못 해.' 이러지 마시고요.

패기 있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으로써 그냥 한 번씩 생활하시면서도 나한테 부당한 일이 올 때, 몸이 아플 때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해 보시면, 영가가 뭐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렇게 됐다 이런 것도 다 자기가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되는 것이니 그냥 해 보세요. 그냥 그냥 해 보시면 바로 체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 그게 커지고 커지게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그 점을 알게 됩니다.

옛날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들은 이야기인데 아마 조선 시대인 모양입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사람이 밤만 되면 항상 '이놈 때려죽인다' 고 미친듯이 도끼나 낫을 가지고선 아무 집에나 들어가서 그냥 찌르곤 야단이 난 겁니다. 그것이 어느 때서부터 그랬느냐 하면, 그 마을이 잘 살았는데 어느 때서부터 갑자기 그런 일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동네가 다 망하다시피 했는데, 어느 스님이 들어오시다가 그곳에 들르셨답니다. 들르셔서 보니까 '아하, 이거 야단났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몇몇 사람을 데리고서 "곡괭이하고 삽하고 괭이를 가지고 날 따르라." 이랬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래 스님을 따라서 골짜기로 올라가니까 그 산모롱이에, 왜, 산 혈맥이 있지 않습니까? 혈맥 귀퉁이 거길 파라고 하더랍니다. 그래 파니까, 옛날에 오물 묻었던, 넓게 지하실을 만들었던 자리가 있더랍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뼈다귀가 수없이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그 뼈다귀를 다 태워 버리고 난 뒤에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일본 마적이 들어와서 여자들을 납치하고 또 그 식구들을 죽이고 데려온 여자들을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도 데려다가 막 죽이고 재산을 뺏고 몰살을 시키고 묻어 버린 그 자린데, 그냥 혈을 끊어서 그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이 혈을 따라서 이 동네로 왔기 때문에 이 동네가 이렇게 망한다. 이것을 태워 버렸으니 이젠 괜찮을 거다." 하고선 부적을 하나 써서 "이것을 마을에 붙여라." 했답니다.

부적이 그래서 생겼는데, 우리가 그러한 얘기를 들을 때 혈도, 지금 이 공부 하시는 분들은 혈이 산에 이렇게 생겼든 저렇게 생겼든 혈이 이쪽으로 왔든 묘지를 쓰든 또 집을 짓든 이사를 가든, 아무 걱정 없는 것이 바로 이 공부입니다. 혈을 우리 마음대로, 혈이 이렇게 됐다면 이쪽으로 이렇게 해 놓을 수도 있고 저쪽으로 해 놓을 수도 있어요. 누가 '혈이 없다, 이건 나쁜 터다' 이러더라도 내가 한번 딱 짚었으면, 지팡이로 딱 짚은 겁니다. 주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중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짚으면 그 자리가 참 좋은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몸도 고정되지 않고 먹는 것도 고정되지 않고, 보는 거 입는 거 모두가 고정된 게 없으니 공한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나쁘다 하면 나쁜 것이고 좋다 하면 좋은 것이지, 왜 남의 운운에 끄달리면서 노예가 돼 가지고 이리 왈 저리 왈 갈대와 같이 흔들리느냐 이겁니다.

이 공부는 자기 자성불을 이루어서 해탈을 하라는 뜻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뭐, 구태여 말로 해탈이랄 거 없이 자기한테서 나오는 모든 것을 다 자기한테다 다시 놔라 이겁니다.

> 바람결같이 왔다 가는 세상에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 죽을 때 죽고 살 때 살더라도 탁 놓을 수 있는 마음,
> 믿고 놓을 수 있는 그 마음만 가지신다면 훨훨 날 것입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